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4월 26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창세기 6장 9-12절

설교제목 :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코로나 19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 19의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인류 최초의 전세계적인, 팬데믹적 심판이었는데, 노아홍수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5-7절)**.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17:26-27) 많은 사회학자들이 결혼풍습을 보면,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시대의 결혼풍습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창6:2**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6:2에서 당시 결혼풍습을 보여주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보고(라아)**’, ‘**아름다움(토브/좋아서)**’, ‘**삼는지라(라카흐)**’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과 동일한 성경본문이 있습니다. **창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의 범죄행위를 보여주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보고(라아)**’, ‘**먹음직도(토브/좋아서)**’, ‘**따먹고(라카흐)**’입니다. 노아 시대의 결혼풍습은 하와의 범죄행위와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보고, 좋으면 마음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결혼풍습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을 인간이 마음대로 깨뜨리면서 마치 인간이 이 땅의 최고의 권위자처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예 라멕/일부이처제 창4:19) 홍수의 두 번째 이유는, 땅의 부패함입니다.(창6:11-13) 땅의 부패함이란 땅에 포악함, 즉 폭력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처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지만, 그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얼마나 포악과 폭력이 가득 찼는지를 보여줍니다.(창 4:23-24) 따라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피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창9:3-4)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채 먹지말라**’는 것은 6계명의 차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자기주장과 인간의 포악함이 가득 찬 결과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의 원인과 동일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이 땅은 인간의 횡포가 지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봅시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는 노아의 스토리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대홍수의 심판에서 노아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재앙은 악인에게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과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고 주고자 하는 교훈은 다른 차원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선포합니다.(8절) 그리고, 노아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소개합니다.(9절) 이러한 연결을 통해, 성경기자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되어지는 재앙과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우리 자신의 삶에 펼쳐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삶으로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기자는 우선, 노아가

의인이라고 합니다.(9절) 노아 이야기를 읽어보면, 홍수 이전에 노아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기자는 노아의 행동만을 기록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묘사만 반복합니다.(창6:22, 창7:5) 노아가 의인이라 평가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9절) 노아의 인생을 보면,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완전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완전함이란 ‘끈질김’, ‘변함없음’, ‘한결같음’이란 의미입니다. 결국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것은 당대 사람들은 자기소견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인양 살았는데, 노아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더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주장대로 살고,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으로 가득한 그대에 노아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그대에 노아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고 보여줍니다. 우리는 코로나 19와 같은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더욱 실현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더욱 이웃과 소통하며 섬기면서, 소외된 자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초래되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현장에 은혜의 현재성, 다시 말해서 은혜가 우리의 삶 의 한복판에 구체적으로 흐르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감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노아홍수가 발생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창6:8과 창6:9의 연결성을 통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는 코로나 19의 상황을 지나면서 더욱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은혜가 실재화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